

이재명 '종부세 완화론'에 친문 반발... '巨野 연합' 금가나

李 "합리적 결론내야"...중도층 표심 호소력 높여 조국혁신당·진보당 비판... '친명vs친문' 확전 주목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거야(巨野) 연합 전선'이 15일 각 당의 차기 리더십 선출과 맞물려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을 띄운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에서도 기존의 민주당 노선과는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른바 '막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다는 뜻의 조어)을 기치로 내건 이 전 대표는 중도·중산층 표심에 호소력이 큰 세금 이슈까지 들고 나오면서 차기 당권을 넘어 사실상 대권 재도전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며 "국민들 뜻을 존중해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종부세 완화론은 당내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민주당과 연합 전선을 형성한 군소 야당의 반발도 불러왔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두관 후보는 이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당이 지켜온 나름의 원칙이 있다"며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2022년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며 "그럼에도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앤다면 지역은 완전히 망한다"고 사실상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진보당은 "이 전 대표가 진정으로 먹

사니즘을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생각한다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소득재분배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정책 이슈를 둘러싸고 야권에서 이견이 분출한 이면에는 진영 내 해계모니 경쟁, 나아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주도권 포석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상 '이재명 2기 체제'로 기울면서 친명(친이재명)계가 야권의 주류로 자리 잡는 가운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야권의 전통적 주류 세력이 이에 맞서는 형국이 된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의 적통'을 자처하는 김두관 후보는 봉하마을(노 전 대통령)과 평산마을(문 전 대통령)에 이어 이날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

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김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대로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와 '전명' 최고위원으로 구성되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꼭 이어온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끼는 당원들이 많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주요 인사들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고,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 된 새로운미래 역시 문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 출신인 전병헌 대표 체제를 구축했다.

전 대표는 전날 수락 연설에서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당 정통성과 DNA를 박멸한 것도 모자라 푸틴 방식을 모방해 나치 시대를 흉내 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회 전국당원대회'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대표 후보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계호 중앙선관위원장, 김두관·김지수·이재명 후보, 박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두관측 "李에 유리 불공정 경선룰 유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두관 후보 측은 15일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룰이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후보 캠프의 백왕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 시행세칙과 일정에 불공정한 부분이 많아 심히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후보자의 정견 발표도 듣지 않고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유권자는

상식적으로 정견 발표를 듣고 난 후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반영 비율이 높은 권리당원 투표가 해당 지역 후보자 연설회가 진행될 즈음엔 대부분 끝난 상태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권리당원의 경우 친명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들며 "이 후보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룰로, 연설을 다 듣고 투표 후 최종 결과는 8·18 전당대회에서 발표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가교육위, 존재감·위상 낮다"

6개월째 '소통 게시판' 운영 중...국민들은 외면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가 올해 1월부터 교육 과정 및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으로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 동의해야 교육위가 논의의 주제로 발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 관련 현안과 정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소통 게시판'에 국민 의견이 거의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존재감과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진수 기자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교육과정 분야 16건 ▲교육 정책 분야 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육 과정의 경우 16건 중 4건은 종료됐고 12건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진행 중인 12건의 경우도 최소 2만명

발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 관련 현안과 정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소통 게시판'에 국민 의견이 거의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존재감과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진수 기자

"폭주족 처벌 강화"... '오토바이 패키지 3법' 발의

조인철 의원 "어린이·보행자 보호...탄소중립 실현도 고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사진)은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 강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은 물론, 밤낮없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공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실정이다.

계정안은 스쿨존 내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 가능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해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위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솥방망이 수준에 그쳐 난폭운전·공동 위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밖에 국가 및 지자체가 전기 오토



바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오토바이가 제외되고 있어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오토바이 과속·신호위반·과속·폭주 등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단속 및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전환 지원을 통해 소음 공해 차단은 물론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공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사진)은 15일 "총급여액 8천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천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 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기돼 왔다. 실제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 감면은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도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에 친화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NEW 우라칸 SH-1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우라칸 SH-2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블리스 GOLD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15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